우리은행 간판 박혜진 잔류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국민은행 양강구도 지속

베테랑 득점원 김정은도 남아
국민은행 박지수·김민정 잔류
외국인선수 제도 폐지된다면
양강 구도 더 뚜렷해질 가능성

여자프로농구 자유계약 최대어 박혜진이 아산 우리은행에 잔류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충남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과 부천 KEB하나은행 경기에서 우리은행 박혜진이 달리고 있다.

여자프로농구 자유계약(FA) 최대어 박혜진이 아산 우리은행에 잔류했다. 인센티브를 뺀 순수 연봉만 상한선인 3억원에 4년 계약을 맺었다.

박혜진은 통합우승 6연패의 주역이자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다. 국가대표 주전 가드로 핵심 전력이다.

우리은행은 박혜진 외에 베테랑 득점원 김정은을 잡는데도 성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이 조기에 끝났지만 둘은 우리은행이 21승6패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우리은행은 2017~2018시즌까지 통합우승 6연패를 하다가 2018~2019시즌 청주 KB국민은행에 왕좌를 넘겨줬다. 이번에 정상을 탈환했지만 독보적인 위상은 흔들렸던 장면이다.

박혜진과 김정은이 잔류함에 따라 우리은행-KB국민은행의 양강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네 팀의 전력 보강에 한계가 있고, 리그 판도를 흔들 신인을 찾기도 어렵다.

미국여자프로농구(WNBA)를 오가며 활약하는 센터 박지수(KB국민은행)가 우리은행의 큰 걸림돌이다.

박지수는 2018~2019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에서 모두 MVP를 차지하며 KB국민은행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다.

지난 시즌에도 21경기에서 평균 13.8점 11리바운드 4.3어시스트 2.3블록슛으로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기 종료로 아쉽게 2위에 머물렀지만 플레이오프까지 정상적으로 치렀다면 챔피언의 향방은 알 수 없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FA에서 알토란 포워드 김민정을 잔류시켰다. 김민정은 28경기(전 경기)에서 평균 6.5점 3.4리바운드로 톡톡히 제 몫을 했다.

지난 시즌 함께 했던 심성영, 김가은, 김소담을 비롯해 아직 계약하지 않은 FA 자원이 있어 전력 보강이 가능하다.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외국인선수는 제도 폐지 여부에 따라 변수가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WNBA 개막은 무기한 연기됐다. 일정이 미뤄지면서 차기 시즌 WKBL 일정에 맞춰 합류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일부 구단 사이에서 외국인선수 제도 폐지 여론이 불고 있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국내선수들로만 시즌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구단별 유지와 폐지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전해진다.

WKBL 관계자는 "코로나19 변수가 있다. WNBA 개막 연기에 따라 이번 시즌은 (WKBL) 외국인선수 제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와 별도로 외국인선수 제도 폐지 여부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다"고 했다.

이에 앞서 27일 사무국장 회의에서 외국인선수 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외국인선수 제도가 폐지된다면 우리은행-KB국민은행의 양강 구도는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뉴시스

"언제 어디서나 운동하는 분위기 조성"

양영수 순창군체육회장
스포츠마케팅 추진 주력

"언제 어디서나 군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순창군체육회장은 '체육으로 하나되는 순창군'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양 회장은 ▲체육 꿈나무 육성 및 동호인 증대, ▲스포츠마케팅 추진, ▲안정적인 체육예산 확보, ▲생활체육 활성화, ▲직원·지도자 처우개선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체육발전을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순창군을 체육 메카의 고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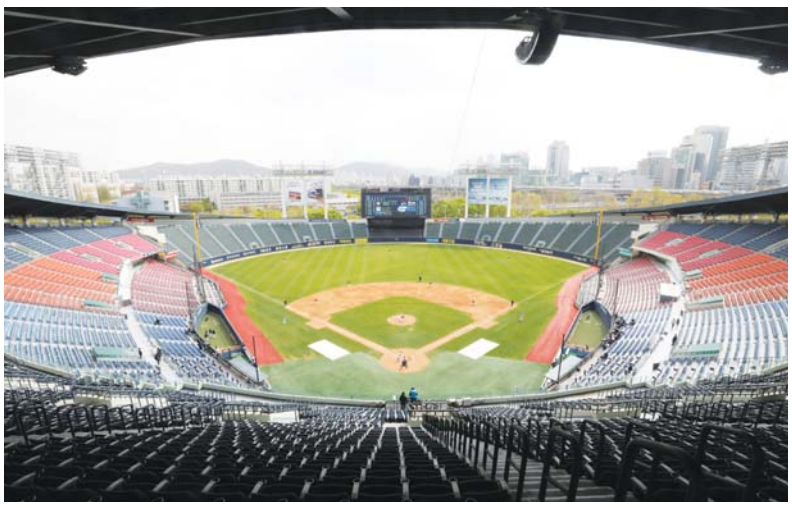
이에 양 회장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운동장 등의 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규모가 작아 전국 또는 국제대회를 치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양 회장은"전국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스포츠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방심하면 뒤처지고 언제든 우리 대회도 빼앗길 수 있다"며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는 각종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종합스포츠타운(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한 만큼 순창군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양 회장은 "현재 순창군에서 일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스포츠마케팅 전담부서 등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이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체육회로 주려한다"며 "이는 군에서 체육회를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모범적 사례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군민들이 스스로 운동하고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소통하고 공감하는 순창군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무관중 경기로 텅 빈 관중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무관중 연습경기가 열린 22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 관중석이 비어 있다.

K리그 개막 일정 확정되나?

프로축구 이사회 24일 개최… 내달 9~10일 개막 목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프로축구 K리그 개막 일정이 24일 확정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0년 제3차 이사회를 24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선 K리그 개막일과 경기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리그 일정 축소와 관련해 승강제 방식도 결정된다.

지난 2월 29일 개막 예정이었던 K리그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명 안팎으로 줄면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완화돼 본격적인 개막 준비에 돌입했다.

연맹은 내달 9~10일 개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6~17일 개막도 고려하고 있다.

각 팀에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최소 개막 2주 전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24일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개막이 두 달 넘게 미뤄지면서 경기 수 축소가 불가피하다.

K리그1은 12개팀이 22라운드를 치른 뒤 상위 6개팀과 하위 6개팀이 분리된 파이널라운드(5라운드)를 더 치르는 27라운드가 유력하다.기존 38라운드(33라운드+스플릿 5라운드)보다 11경기 줄어든다.

2부리그인 K리그2도 10개팀이 세 차례씩 맞붙는 27라운드로 기존 36라운드보다 9경기 축소된다.

/뉴시스

전북 현대, 선수들 출근길 '드라이브스루' 인터뷰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선수들의 출근길 인터뷰를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진행했다.

전북은 팬들과 온라인 소통의 연결고리로 제작하고 있는 '축구 톡톡' 6탄을 통해 23일부터 3일에 걸쳐 3편으로 공개한다고 22일 전했다.

클럽하우스에 출근하는 선수들을 드라이브스루 형식을 만났다. 코로나19로 대면 인터뷰가 금지된 상황에서 팬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동국, 김보경, 이용 등 여러 선수들이 인터뷰에 응했다. 또 즉석에서 차량에 있는 물건 중 하나를 기증하는 이른바 '차털기'를 실시해 팬들에게 전할 선물을 준비했다.

영상 공개 후, 최고의 댓글을 남긴 팬에게 전할 계획이다. /뉴시스